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소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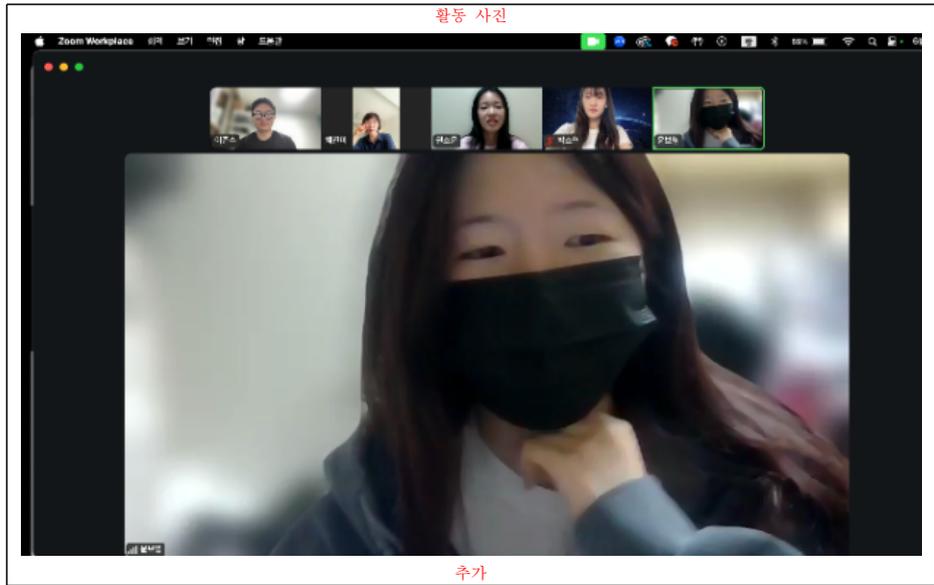
1주차	일시	4월 9일 16 : 30 교내 우촌관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보영(2251150)	O
		이준수(2251151)	O
		권소윤(2251152)	O
박소연(2231330)		O	
	성명(학번)	O / X	
진도	도서명: 랑과 나의 사막	진도페이지:	1p. ~ 40 p.
토론 내용	 <p>[좌측부터 권소윤, 윤보영, 박소연, 이준수]</p> <p>1. 이 책은 로봇이 전지적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로봇이 전개하는 자신의 이야기는 다소 신선한 주제였을텐데 어떻게 읽었는지?</p> <p>윤보영: 랑의 죽음 이후에도 고고는 랑을 기억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고, 인간적인 감정을 탐구하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특히, 고고가 과거를 떠올리는 결함을 '기억'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은 슬프면서도 감동을 받았다.</p> <p>권소윤: 인간 대 인간이 아닌 로봇의 입장으로 접근한 소재가 신선했다. 로봇의 입장에서 감정을 묘사한 게 신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묘사할 지 궁금하다.</p> <p>박소연: 고고의 입장에서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바라본 점이 인상 깊었다. 그동안 자연스럽게 가졌던 감정과 생각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p> <p>이준수: 로봇은 감정이 없는 기계인데 그러한 로봇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점이 놀라웠고 신선하였다.</p> <p>2. 고고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일 수 있을까?</p> <p>윤보영: 고고는 자신 랑 혹은 다른 인물에게 가끔 말을 아끼는 장면이 있다. 그가 과연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았다면 말을 아끼지 않고 곧바로 이야기 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런 면에서 고고는 인간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p> <p>권소윤: 고고는 로봇이다. 고고는 흥내만 낼 수 있지, 진짜 감정은 없다. 감정이란 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인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게 어려울 것 같다.</p> <p>박소연: 고고가 가끔 인간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데, 고고가 랑의 감정을 투영하고 예상하고 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로봇이 랑의 감정을 분석하고 예상한다는 것이 신기했다.</p> <p>이준수: 그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고는 감정을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한다. 인간의 축적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고고는 인간적이게 될 수 있을 것이다.</p> <p>3. 고고는 왜 인간을 따라가지 않고 혼자 사막을 나아갔을까?</p> <p>윤보영: 랑과의 추억을 위해 과거로 가고 싶은 목적을 이루려 나아갔다. 인간과의</p> <p>권소윤: 자발적 고립을 택한 것 같다. 로봇에게는 명령과 데이터, 숫자로 계산되고 움직이기에 감정이라는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수고가 없다. 효율을 따져보았을 때 인간과의 관계는 이득이 되지않는다고 판단했을 것</p> <p>박소연: 고고는 1천년동안 잠을 잤다. 전원이 꺼졌다고 표현하는게 맞다. 고고에게는 감정이란 것이 아직 발현되지 않아 외로워도 외롭지가 않았을 것이다. 외로움에 익숙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이 있는 인간과 있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다.</p> <p>이준수: 랑을 잃고 랑을 그리워하는 표현이 묘사가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로봇이지만 아픔을 느낀 것 같다. 또 다시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간다면 고고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고고는 혼자 사막을 나아갔다.</p>		

	일시	5월 27일 15:30 교내 우촌관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보영(2251150)	O
		이준수(2251151)	O
		권소윤(2251152)	O
		박소연(2231330)	O
		성명(학번)	O / X
2주차	진도	도서명: 랑과 나의 사막	진도페이지: 41p. ~ 80 p.
	토론 내용	<div data-bbox="525 609 1458 1335"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35 1352 1246 1386">[좌측부터 윤보영, 박소연, 권소윤, 이준수]</p> <p data-bbox="491 1440 788 1464">1. 사막이 갖고 있는 감정 상태란?</p> <p data-bbox="491 1487 1490 1554">윤보영: 사막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사람도 없고 나무도 없다. 심지어 사람이 사막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사막을 나아가고 있다는 점은 이 사막에서 감정을 지닌 생명체는 그 누구도, 무엇도 없는 것을 보았을 때 고고의 내면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이자 배경 같다.</p> <p data-bbox="491 1554 1490 1621">권소윤: 전쟁 이후 사람을 통해서 죽음을 만들고 고고의 심리적 부분과 랑이 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사막은 작가가 잘 설명하려고 만든 배경 장치, 사막은 삭막하다 살아남을 수 없을 거 같고 생명과는 동떨어진 상징이지만 로봇과 인간이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어쩌면 랑이 고고의 오아시스가 아닐까 싶다.</p> <p data-bbox="491 1621 1442 1644">박소연연: 고요하고 고립된 상황과 고고의 쓸쓸한 마음이 사막과 잘 매치가 되고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 같다.</p> <p data-bbox="491 1644 1246 1666">이준수: 4천년대 영화 배경에서 전쟁의 이유가 있지만 배경이 사막이라는 점이 신기했다.</p> <p data-bbox="491 1688 660 1711">2. 인상깊었던 구절</p> <p data-bbox="491 1711 1171 1733">윤보영: 사막의 새벽은 조용했다. 조용해서, 오히려 나의 마음이 더 시끄러웠다.</p> <p data-bbox="491 1733 1315 1756">(공간의 고요함과 인물의 내면이 대조되면서, 사막이라는 배경이 감정의 거울처럼 느껴지는 순간)</p> <p data-bbox="491 1756 1490 1800">권소윤: 그렇다면 이 사막도, 사막인 적 없던 이 땅도 인간에게 화가 났음을 침묵으로써 표현하는 중일지도, 지카에게 말하면 고쳐줄 수도 있지만 나는 오류를 지속하고 싶다. 감정을 쉴 수 없으니 뺏기는 것 같다.</p> <p data-bbox="491 1800 1490 1868">박소연: 내게는 랑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는 목적이 있다. 행복을 웃음과 편안함과 속면 정도로만 추측할 수 있으면서 감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고로 마음에 드는 걸 가지라던 라이이 질문에 대한 옳은 선택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었으면 된다는. 너무 뒤늦게 해결책을 찾았다. 조개껍질 두 개, 전부 랑에게 주었으면 됐다.</p> <p data-bbox="491 1868 1490 1912">이준수: 육체의 순환을 거부하고 비틀어 생을 단축하면서까지 변화를 주려는 인간의 모습은 완벽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 죽어야만 한다는 그들의 종교 같다.</p> <p data-bbox="491 1935 852 1957">3.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유는?</p> <p data-bbox="491 1957 1075 1980">권소윤: 그리움 / 고고가 랑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꼭 전개하는 것</p> <p data-bbox="491 1980 1490 2002">박소연: 오아시스 / 극한의 상황속에서도 서로가 존재함으로써 버틸 수 있는 상태 서로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는 존재</p> <p data-bbox="491 2002 1490 2047">윤보영: 여백 / 허전하지만 여운이 남는 감정의 여백. 사막은 비어있지만 그러면서 더 많은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것 같다.</p> <p data-bbox="491 2047 1490 2092">이준수: 고요 / 랑과의 교류를 보면 긴 대화가 오가지는 않는다. 고고라는 로봇은 단답식으로 대화를 하며 랑은 단적으로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행동으로 교류를 하며 그에 수반되는 감정이 깃들여 있다.</p>	

일시	6월 7일 11 : 00 zoom회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보영(2251150)	○
	이준수(2251151)	○
	권소윤(2251152)	○
	박소연(2231330)	○
	채진미교수님	○
진도	도서명: 량과 나의 사막	진도페이지: 81p. ~ 120p.

3주차

토론 내용



좌측부터 이준수, 채진미교수님, 권소윤, 박소연, 윤보영

1. '량'과 '나'의 관계는 사랑, 우정, 의존 중 무엇에 더 가까웠을까?

윤보영: 량과 고고는 의존에 가깝다. 고고는 량이 없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할지 모르는 모습이 책에서 보였다. 량 역시 고고를 혼자 두려하지 않아 서로가 서로를 꼭 필요로 하는 것 같다.
이준수: 량과 고고는 의존에서 사랑으로 향했다. 처음 사막에서 서로 의존해야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지만 생명의 연장 외에 그 둘의 표현, 서사, 책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 둘은 사랑했고 그리워하였고 고고는 량을 그리워하고 량과의 추억을 위해 그의 생명까지 저버리는 장면이 있으므로 고고와 량은 서로 의존하였고 사랑하였다.
권소윤: 의존에서 시작했다. 량은 우정인 것 같고 고고는 사랑인 것 같다. 량과 고고의 이야기 흐름을 보면 량은 고고가 로봇이기에 알려주고 사랑이라고 보단 정이 들었던 것 같다. 고고는 그런 량을 보면서 하였던 표현들이 사랑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박소연: 사랑이다. 사실 처음에 고고는 량을 사랑한다고 생각 못 하였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사랑같다. 우정과 의존에 비해 사랑과 그리움이 동반된 것 같다.
채진미교수님: 각각 성향과 해운 사랑과 이별이 달라 네 명이 느낀 관계는 달라진 것을 보아 흥미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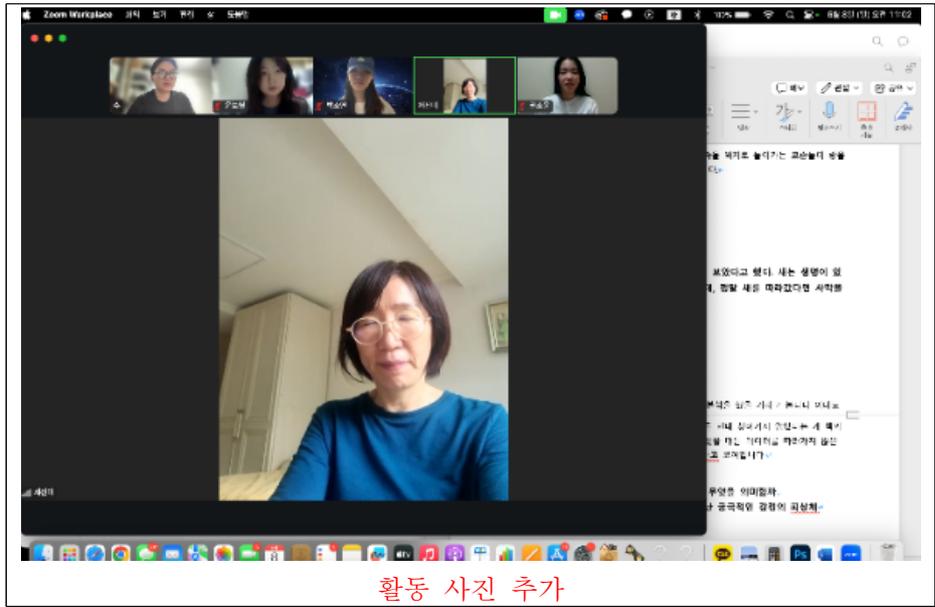
2. '고고'가 로봇인데 감정이 들어간 표현을 보여준다. 무엇을 뜻할까?

윤보영: 로봇이지만 인간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감정과 서사를 보고 고고가 점점 두렵다. 이상하다라는 감정을 고고가 자신도 모르게 느끼면서 그 감정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책의 전개 내용이다.
이준수: 감정을 느낀다고 본다. 다만 아직까지 고고가 자신이 감정을 느낀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 고고 자신은 로봇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로봇은 감정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므로 그의 데이터상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을 것이다.
권소윤: 학습되었다. 고고가 아직 감정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량이 이랬으니 이렇지 않을까 하는 흐름이다. 아직 4000년 데이지만 감정이 학습되는 것이 발달이 되었고 로봇이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이렇기에 1번 질문과 흐름이 비슷하다. 사랑, 의존의 감정이 직접 느껴진다면 본인들도 알았을 것이다.
박소연: 감정이 꼭 느끼는 것이 아니라 표현되는 것이다. 책에서 사람들도 그렇듯하게 연기하는 것. 인간도 감정을 표현하고 학습함으로써 고고 또한 감정을 학습했다고 느낀다.
채진미교수님: 로봇과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이러한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 책이 많다. 이게 학습인지 정말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엄청 정교하게 학습이 되고 각각의 인간의 두뇌를 학습하였다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로봇은 인간이 만든 기계이다. 그 안에 생각하는 사고와 흐름이 거의 인간과 동일시 되는 것 같다. 기계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뇌도 똑같다. 우리도 아기때부터 커가며 사고하며 발달이 되고 기능이 생긴다. 로봇 또한 데이터가 축적되어 감정이란 것을 느끼기까지 발달이 가능할 것이다.

3. 주인공은 과거로 가는 땅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으로 가고 싶을까?

윤보영: 량과 함께 했던 과거. 고고는 량을 잃은 후에도 량을 그리워하고 량이 보고 싶어했던 푸른 나무를 보고 싶어 한다. 량이 보고 싶어하고
이준수: 고고는 량과 처음 마주했을 때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전쟁시대에 태어나 전쟁에 필요로 쓰였지만 그 기억이 없다. 존재 목적을 부인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고고에게 가장 찬란했던 과거는 량과 함께하였던 과거이다.
권소윤: 량이 죽기 직전. 고고는 로봇이기에 계속 살아있다. 량은 사람이어서 죽는다. 고고가 죽은 량을 직접 사막에 묻는 기억이 있다. 고고에게 기억하기 싫은 기억이다. 고고가 꼼꼼하게 생각하는 기억이기에 량이 죽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량과의 추억을 더 느끼려 할 것이다.
박소연: 량과의 함께 했던 시점. 힘든 사막이랑 폭풍속을 먹지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량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일종의 사랑이 기반된 행동이다.

일시	6월 8일 11 : 00 zoom회의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윤보영(2251150)	○
	이준수(2251151)	○
	권소윤(2251152)	○
	박소연(2231330)	○
	채진미교수님	○
진도	도서명: 랑과 나의 사막	진도페이지: 120p. ~ 160p.



4주차

토론 내용

[좌측부터 이준수, 윤보영, 박소연, 채진미교수님, 권소윤]

1. “고고는 검은 벽을 본 시점에서 날아다니는 새를 보았다고 했다. 새는 생명이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간다는 데이터를 가진 고고인데, 정말 새를 따라갔다면 사막을 지나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았을까?”

채진미교수님: 과거의 소용돌이를 따라가서 랑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
권소윤: 새를 찾아가는 것 보다는 시간의 소용돌이를 찾아가는 것이 랑을 찾는 최우선이라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 가지않았다 거리가 가늠이 안 갔고 고고가 기계적 결함이 있어서 가지 못했을 것이다 독자가 상상하게 만들었을 것.
윤보영: 고고가 새를 찾았다면 사막을 벗어나서 생명이 있는 곳을 찾았을 것. 고고가 새를 따라갔다는 행동을 희망을 찾고 나아갔다는 것인데 그 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박소연: 비슷하다 하지만 꼭 생명을 찾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고고가 새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이 고고가 감정을 가졌고 의지와 희망을 가지려고 했을 것
이준수: 고고는 로봇이기에 데이터 기반으로 분명히 분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새를 따라갔다면 생명이 있는 곳을 분명히 찾아갔을 텐데 찾아가지 않았다는 게 책의 전개 방향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로봇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데이터를 따라가지 않은 걸로 보여서 고고가 감정을 가졌다. 선택을 하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2. 책의 마지막부분에서 만나게 되는 인물 '살리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준수: 고고의 내면에서 피어난 궁극적인 감정의 피상체라고 느껴진다. 실제로 그 인물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청년인지 가능성이 가지 않고 유일하게 로봇인 고고가 분석할 수 있었던 데이터는 153-155cm의 신장과 마른 체형이라는 것일 뿐그는 마지막에 감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살리의 도움이 있었다.
권소윤: 준수와 비슷하다 살리를 고고의 내면을 인격화 했다 고고가 항상 자신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나 고고가 갖고 있는 것 고고는 감정을 가질 수 없고 가져도 안 된다. 살리는 고고에게 감정은 흉내내고 학습이다. 이것을 말함으로써 고고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매개체고 고고의 궁극을 깨주었다.
윤보영: 고고에게 중요한 인물이다 고고가 자신의 감정을 모르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고고가 마지막을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외롭다는것을 인식한다. 고고가 외롭다고 말하는 구절이 있다. 감정을 못 느끼서 외롭다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살리를 만나 덜 외롭다는 느낌이 있다.
박소연: 살리는 고고가 답을 찾았음을 보여준다 고고가 그리움을 보인다고 말해주고 고고가 몸이 다 망가지고 어려워하는데 힘을 줘서 고고가 인지하게 도와주고 고고의 시간을 느리게 보여준다

3. 고고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까? 그 이유는?

권소윤: 원하는 바를 이뤘다. 이 소설이 배경이 사막인데 사막은 생명체도 없고 확인도 안 되는데 이런 랑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
윤보영: 고고가 마지막에 랑을 만나러 가는 길에 고고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고 본다 처음에는 고고가 만나러 가는 길을 계속 걸었지만 살리를 만나고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만나러 가는 과정이다. 그것 자체가 의미있다
박소연: 고고가 마지막에 소용돌이로 들어가면서 고고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다 고고가 랑을 찾는 것이 목적이지만 고고가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다 고고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도 이뤘고 과거로 가는 땅을 가며 랑을 찾으려는목적도 수행해 나갔을 것
이준수: 완전히 이루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여기서 살리 라는 인물을 제가 고고의 내면적 피상체라고 밋대었을 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이야기에서 크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많이 없다고 느껴진다. 고고는 마지막에 감정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스스로 사막 너머 생명체가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새를 따라가지 않고 폭풍을 지나가겠다는 선택을 하였다. 그리고 고고는 현실적인 시간상의 과거로는 가지 못했지만 감정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고고는 과거를 회상하며 랑과의 기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을 때 고고는 원하는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채진미교수님: 소연의 이야기를 들으니 결말이 아련하다. 소용돌이로 자신의 몸을 뛰었을 때 자신의 감정을 가진 것 아니나 슬프다.. 살리를 따라갔으면 새 삶을 살아갔을 정답이 있을 것이다. **로봇이 감정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그대들은 어떤 선택.?**
권소윤: 저도 살리를 따라 갔을 것 몸이 너무 망가졌고 소용돌이에 몸이 버티지 못 한다. 과거로 간다 한들 명확하게 정확한 시점으로 못 갈 것
윤보영: 저는 랑을 만나러 뛰어갔을 것 고고가 랑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랑을 사랑했던 것 같다 포기하지않고 랑을 만나러 분명히 뛰어갔을 것이다.
박소연: 현실적으로 몸이 부서져있고 소용돌이의 데이터가 명확하지않아 살리를 따라가서 몸을 고친 후에 소용돌이의 데이터를 축적한 뒤 확답이 있을 때 들어가갈 것 같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윤보영 (2251150)	<p>이번 독서클럽 모임에 참여하면서 책을 읽는 경험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혼자 책을 읽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나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듣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야가 넓어졌다. 특히 각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고, 덕분에 책의 내용이 한층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다. 모임 내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점이 좋았고, 덕분에 나 역시 내 생각을 더 솔직하게 꺼낼 수 있었다.</p> <p>앞으로도 이런 모임을 통해 다양한 책과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 스스로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된다.</p>
	2	이준수 (2251151)	<p>저는 소설을 자주 읽지 않고 사실을 기반으로 쓰여진 책들을 위주로 읽어왔습니다. 살아온 경험과 생각, 성격, 가치관 등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을 읽어 각자 다른 4가지의 생각과 의견이 나오는 것이 신기하였다.</p> <p>또 소설에 대한 흥미가 생기었고 추후에 더 많은 소설을 읽을 의향이 생기었습니다.</p>
	3	권소윤 (2251152)	<p>독서클럽을 통해서 짧게나마 인문학적 소양을 쌓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책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대방의 생각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책의 주제가 인간과 로봇간의 관계, 로봇의 감정에 대한 주제여서 현재AI, 로봇에 대한 발전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인간과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공생'이 가능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p>
	4	박소연 (2231330)	<p>이번 독서클럽은 혼자 읽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어서 의미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지나쳤을 수도 있는 장면이나 문장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 다른 시선과 해석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고 책을 읽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앞으로도 꾸준히 책을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관점을 확장하는 경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생각의 힘을 다시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p>
	5	성명 (학번)	